

합격기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 재 권

- 1972년 8월 生
- 충남 서산 서령고 졸업
- 광운대학교 법대 졸업
- 2011년(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I. 들어가며

처음 고시계로부터 합격기의 원고청탁을 받고 들었던 생각은 신기함이었습니다. 매년 고시생의 입장에서 남들의 합격기를 읽기만 하다가 직접 합격기를 써야 하는 입장이 왠지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갈 즈음에는 막막함이 제 앞에 와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내보일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내지는 무엇을 어떻게 써내려 갈 것인가 하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고시생 시절에 고시계의 합격기를 무수히 접했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이들로부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던 경험에 비추어 저의 줄필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작으나마 힘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구체적인 공부방법론은 다른 합격기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저는 공부방법론 보다는 수험생활을 위주로 해서 이 글을 시작할까 합니다.

## II. 사법시험에 도전하다

### 1. 20대의 가벼움

보통은 이십대에 뜻을 세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말은 저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놀면서 공부를 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모아지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당구를 쳤습니다. 이당시에 당구를 배운지 석달만에 250까지 올리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당구를 치시는 분

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석달만에 250까지 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_^)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군대 내지는 대학진학 등 자신의 길을 찾아서 가기 시작했고 저 또한 남들보다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나이가 더 이상 군대를 연기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에 1학기를 마치고 곧바로 입대를 하였습니다. 2년 2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3년만에 복학했지만 역시 이십대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학재학중에도 공부보다는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운동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또는 가끔은 여행을 다니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영곤형과 상훈이와 함께 제주도 자전거길주여행을 하면서 보냈던 5박6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십대의 과정에서도 채워지지않는 무엇인가가 있음을 느꼈고, 허전하고 공허함이 내 가슴의 언저리를 누르고 있어 항상 채워지지 않는 허기에 배고프고 목말라 했던 것 같습니다.

## 2. 30대 뜻을 세우다

서른 살이 되던 해에 친구 아버님의 부음을 듣게 되었고 그 곳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은사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저에게 남의 눈과 말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길을 나답게 걸어가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용기를 내서 자신을 직시한 다음 현실 너머에 있는 자신의 신념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은 저에게 커다란 화두를 던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과

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란 것이 명확하게 실체를 갖고 있지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영화 뼈뼈용의 스티브 맥퀸처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짓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좀더 치열하게 살아보자는 뜻으로 사법시험의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III. 첫번째 1차 합격

법대를 다니기는 했지만 법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우선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저의 성격상 학교는 최적의 공부장소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림동고시촌으로 장소를 옮겨서 공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0개월가량은 학원의 진도와 모의고사를 따라 가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원래가 엉덩이가 무겁지 못했던 저로서는 이기간이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10개월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고 치른 2002년 제 1차 시험에서 컷라인과 총점 2점 정도의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심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쉽고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사그러들 즈음에는 이런 성적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차 발표가 있은후에는 경제적인 여건등을 고려해서 공부장소를 가족들이 있는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도

립도서관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혼자 있는 것에 익숙치가 않았던 저로서는 시험막바지에 가족과 함께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시기에는 여름까지는 2차과목인 민사소송법과 행정법을 주로 공부 했지만 솔직히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시기는 누구나 집중력있게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시기인 듯 합니다.

9월이 되고 찬바람이 불때가 되어서야 1차 과목들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민법, 형법, 헌법 순서로 공부하되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시험막바지에 다 다룰수록 긴장감이 고조되므로 이를 보강할 나만의 공부 방법이 필요 했습니다. 사법시험1차는 과목당 믿을 수 있는 기본서 한권과 문제집 하나를 선정해서 그 안의 내용만 완벽히 소화한다면 충분히 합격가능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선된 문제집을 교과서와 병행하면서 오답은 별도의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답정리의 형식은 불문이었지만 향후 언제 보더라도 스스로는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다음 오답노트가 완성되면 거의 시험이 두달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때부터는 문제집을 버리고 교과서를 참조하면서 오답노트만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최신 판례와 헌법부속법령 그리고 선택과목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헌민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아니하므로 이런점에 있어서 오답노트는 체계는

아주 유용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이 막바지에 다가오면 공부할 양은 많은데 시간은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낭비한 경험을 많이들 겪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에 봐야할 부분을 미리 오답노트로 정리해 놓고 있으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시험전날까지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집중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통용될 수는 없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한번 쯤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도 미리 예측해서 이에 대한 나름의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임박할 수록의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예측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먼저 서둘러서 준비하는 것은 공부의 한 부분인 듯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충실하게 시험을 준비하였고 다음해인 2003년도 1차 시험에서는 넉넉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실로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고 그동안 지친 심신의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교과서내지 문제집 등은 어느것을 봐야하는지에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저의 답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과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만 모두 숙지한다면 시험에 우수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험가에서 주로 보는 교과서중에서 보다 자신

에게 잘 읽히는 것을 엄선해서 이를 기본으로 공부하되 핵심은 이를 반복해서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수험가에서 그 당시에 많이 보던 교과서인 헌법의 권영성 교수님 저, 민법에는 김준호 교수님 저, 형법은 이재상 교수님 저와 신호진 강사님의 형법요론을 위주로 공부를 했고 문제집은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또한 스터디의 필요성을 보면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잠깐 스터디를 한적이 있지만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스터디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은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IV. 재시의 실패, 그리고 건강

##### 1. 2003년도 제2차 시험

1차를 치르고 채점을 해보니 2차를 준비해도 될 듯하여 곧바로 2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학원의 예비순환과정을 비디오프로그램으로 수강하였는데 진도를 따라가기에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법대를 다녔지만 법공부가 거의 되어있지 않아서 모든 2차과목이 생소했습니다. 이렇게 준비안된 상태에서 치른 초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낙방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헌민형과 형사소송법외에는 모두 과락이었습니다.

##### 2. 2004년도 제2차 시험

7월 1순환이 시작되면서 학원의 일정에 맞추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스터디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 학원의 진도에

맞추어서 예습과 복습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후4법의 진도를 학원의 일정에 맞추어서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일요일도 반납하고서 공부에 매달렸지만 진도는 점점 더 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 나를 더욱 괴롭힌 것은 1순환 과정을 마치고 2순환 과정에 들어왔는데 막상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법시험이라는 터널을 뚫고 나오는 거의 모든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몸도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이 돼서는 감기가 계속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오만을 부리면서 두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몸은 좋아지질 않고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몸무게는 10킬로 가량이 감소했고, 기침과 가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고 아침인데도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고 의사는 저에게 결핵에 걸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까지 결핵이 어떤 병인지도 몰랐던 저로서는 무섭기도하고 과연 2차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약간 꾸준히 거르지 않고 복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하면서 기침이 없어지고 몸상태도 조금씩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은 피곤했고

정신이 맑지 못했습니다. 또한 약의 부작용은 수시로 잘 괴롭혔는데 너무 졸려서 낮시간에도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순환과 4순환을 거치면서 2차 시험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 3. 재시의 실패와 병마와의 싸움

병을 알고나서는 시험만 치르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막상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치르고 나니 합격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2004년도 사법시험 제2차 합격자 명단에 제이름은 없었습니다. 낙방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결핵은 완치되지 않아서 계속 약을 복용하는 중이었고 또한, 2005년도 사법시험 부터는 외국어대신 토익점수등으로 대체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토익점수가 없었던 저로선 다음해에 다시 1차 시험을 치루는 것도 불가능했으므로 애석하지만 그만 사법시험이라는 큰 짐을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시골에서 형님의 펜션을 대리 경영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 V. 다시 도전, 그리고 합격

2003년부터 시작한 병마와의 싸움은 2007년이 되어야 비로서 끝이났습니다. 건강이 어느정도 회복되니 다시 사법시험에 대한 미련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가을 어느 날 (그 날은 수채화같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법서를 잡았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네 번의 2차 시험을 더 치렀고 총 여섯 번의 2차 시험을 치르다음 드디어 2011년 제 53회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2008년도 2차 시험에서는 오랜만에 시험을 보는 관계로 거의 초시때의 성적이 나왔고 이후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2차 시험에서는 총점을 넘겼지만 각각 민법과 행정법 과락이 덜미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번 53회 시험에서도 행정법과목이 불안해서 마지막까지 합격을 확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려와 달리 과락은 없었고 비로서 긴 터널을 빠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이후의 수험생활은 특기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2차 시험의 공부 방법론 위주로 마무리 해 볼까 합니다.

## VI. 제2차 공부방법

2007년도 이후에도 1차 공부방법은 앞서 살펴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 2차시험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2차위주로 공부 방법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제현들께서는 단지 참고하는 정도로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헌 법

헌법은 정회철저를 기본서로 하고 정회철 사례연습을 위주로 해서 공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회철저는 추상적인 학문이었던 헌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특히 정회철 사례연습은 헌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헌법의 경우는 2차 시험의 첫 번째 시험과목이란 점을 간과 하지시 말기를 권

합니다. 시험을 보는 4일중에서 가장 긴 장을 많이 하게 되므로 평소에 사례를 풀어보는 습관을(특히 시험보기 직전)들여 서 두뇌를 헌법사례에 익숙하도록 하는 작업과 함께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의외로 첫 시간에 당황해서 제대로 실력발휘를 못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헌법은 사안의 포섭에 사활을 걸어야만 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헌법은 교수님들이 사안 포섭을 강조하시는 과목입니다. 이는 평소에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실전에서는 막상 잘 되지를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모범답안 등이 어떤 방식으로 사안포섭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2. 행정법

행정법은 개인적으로는 등락이 가장 심한 과목이었습니다. 두 번의 2차 시험에서는 7법 중에서 최고 점수가 행정법에서 나왔지만 한번은 총점을 넘기도 행정법과락으로 떨어졌고, 이번 53회 사법시험에서도 마지막까지 행정법과락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교과서는 2003년부터 보기 시작한 이병철교수님 저를 계속 보았고 사례집은 김연태교수님 저를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떼게 한 과목이라서 공부방법론으로는 특별히 도움을 드릴 것은 없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행정법도 헌법과 함께 사안포섭에 특히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 3. 상법과 민사소송법

상법은 김혁봉상법신강과 황의영사례집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상법은 공부를 제대로 하자면 그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즉 이를 효율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과목은 몰라도 상법만큼은 반드시 확연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학원 강사님들이 강의 해주시는 부분만 공부하더라도 사법시험을 대비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그것도 제대로 소화하기에 힘겨워들 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시윤교수님 저를 기본서로하고 박승수사례집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은 양이 많고 소송법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를 다지는 공부가 필요한 듯 합니다. 이렇게 일정규모에 도달한 이후에는 가장 기복이 없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사례를 통해서 접근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추상적인 소송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법과 민사소송법은 둘째 날에 치르게 됩니다. 다른 날과 달리 후사법 두 과목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므로 다른 과목보다 시험당일에 불 양을 줄여놓는 작업을 평소에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 4.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법은 이재상교수님 저와 신호진형법요론을 위주로 공부를 했고, 사례집은 하태훈교수님 저로 공부했습니다. 형법은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논리적인 일관성과 함께 사안포섭의 정지함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례풀

이를 통해서 정형화된 틀을 잡아놓고 1 내지 2점에 불과 하지만 득점포인트가 될 부분은 모두 건드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가끔 시간조절에 실패한다던지 의외로 뒷통수를 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내지는 사례풀이를 많이 해보시길 권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재상교수님의 기본서와 사례집으로 공부했고 이지민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법파트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가장 비중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과서를 평면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사례를 통해서 증거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증거법은 연수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2차 공부를 하시면서 제대로 공부해 둔다면 연수원공부도 그만큼 수월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조문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 법전과 친해지시길 권합니다.

#### 4. 민 법

드디어 끝판 대마왕 민법입니다. 1,2 차 공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과목입니다. 저는 김준호교수님 저와 지원림교수님 저 그리고 박승수사례를 같이 보았습니다. 민법은 해도해도 끝이 없고 또 끝까지 불안하고 정말 대마왕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연수원에서도 그의 약명은 계속 되니까요.

사법시험성적도 53회에서는 운이 좋아서 꽤 선방을 했지만 51회 시험에서는 과락을 맞았던 과목입니다. 민법은 정도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하루에 두 시간은 무조건 민법을 공부했습니다. 민

법공부자체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않으면 불안감이 너무 커서 집중력을 방해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의 2차 시험은 실로 민법에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점도 높을뿐더러 점수의 편차도 심하게 나기 때문에 민법에서 데미지를 입는다면 이를 극복해내는 것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민법공부에 왕도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과서와 사례집 그리고 직접 답안작성등 끊임없는 접근을 통해서 극복해내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저는 매일 박승수사례 내지는 모의고사 문제를 구해서 풀어본 후에 기본서로 피드백해서 다시 이해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복하기위해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복의 길은 요원합니다. 150점 만점을 기대하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최소한 남들보다는 앞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5. 기 타

시험막바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평소에 산책을 좋아해서 식후에 한 시간 이상을 산책을 하면서 긴장감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근접하면 이 시간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과목별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산책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브노트는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빈출되는 것 위주로 정리 되어있어서 시험막바지에 시간을 절약해주는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심지어 시험당일에는 서브노트만을 보고 시험을 치른 과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비교적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시도해 볼 만한 전략입니다.

답안의 형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각 1점당 몇줄을 배정할 것이며 글쓰는 속도가 문제라면 답안지 양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미리 어느 정도의 양을 채울것인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채점자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답안이 좋은 인상을 줄지를 고민하고 이를 정리해서 표로 만든다음 모의고사를 보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열심히 공부했던 2차생 끼리는 실력차이가 미미 합니다. 답안의 형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많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만의 틀을 완성하시고 실전에서는 그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길고긴 수험기간동안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누적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밝혀듯이 산책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 게임, 만화, 종교활동등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요.(ㅠㅠ)

시험보는 4일동안은 수면시간등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저의 경우는 매일 잠은 5시간 정도로 비교적 충분히 자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결정하면 될 듯 합니다. 저의 경우는 머

리를 맑게 하는 것이 훨씬 시험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만의 공부방법론을 적어보았는데 기존의 합격기에 별한 다를것이 없네요. 결국 正道는 크게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학원등에서 제공되는 짜라지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최대한 범위를 줄여서 무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2차 시험을 공부하다보면 범위를 넓히고 싶은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마음은 특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서점에도 거의 가지들 않았습디다. 가면 충동구매의 욕구가 생겨서.....

## VII. 글을 마치며

수험기간동안 저를 가장 괴롭힌 것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직도 독서실 한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이런 잡념들이 나를 괴롭힐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원에 와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남자든 여자든 또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모두들 자신만의 짐에 힘들어 하면서 수험생활을 견디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객관적으로는 다른 무게일지라도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인 무게는 모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외로운 싸움이기때문에 저마다의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외롭고 힘든 수험생활 중에 다른 분들의 합격기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곤 했는데 저의 줄필이 단 한 분에게라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늦은 나이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모든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짧은 날의 이 시련의 경험이 반드시 귀하게 쓰일 날이 올 것이란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확인하고 가장 행복했던 것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저로 인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지

지해주신 부모님과 형님 내외분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운 친구 현구와 오늘도 신림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태훈, 주희, 나리, 재교형, 오완선배, 정선, 성준,현목, 재철, 현우, 미애 그리고 이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도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부족한 저의 모습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사랑하는 그녀 윤희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면서 글을 마칩니다.